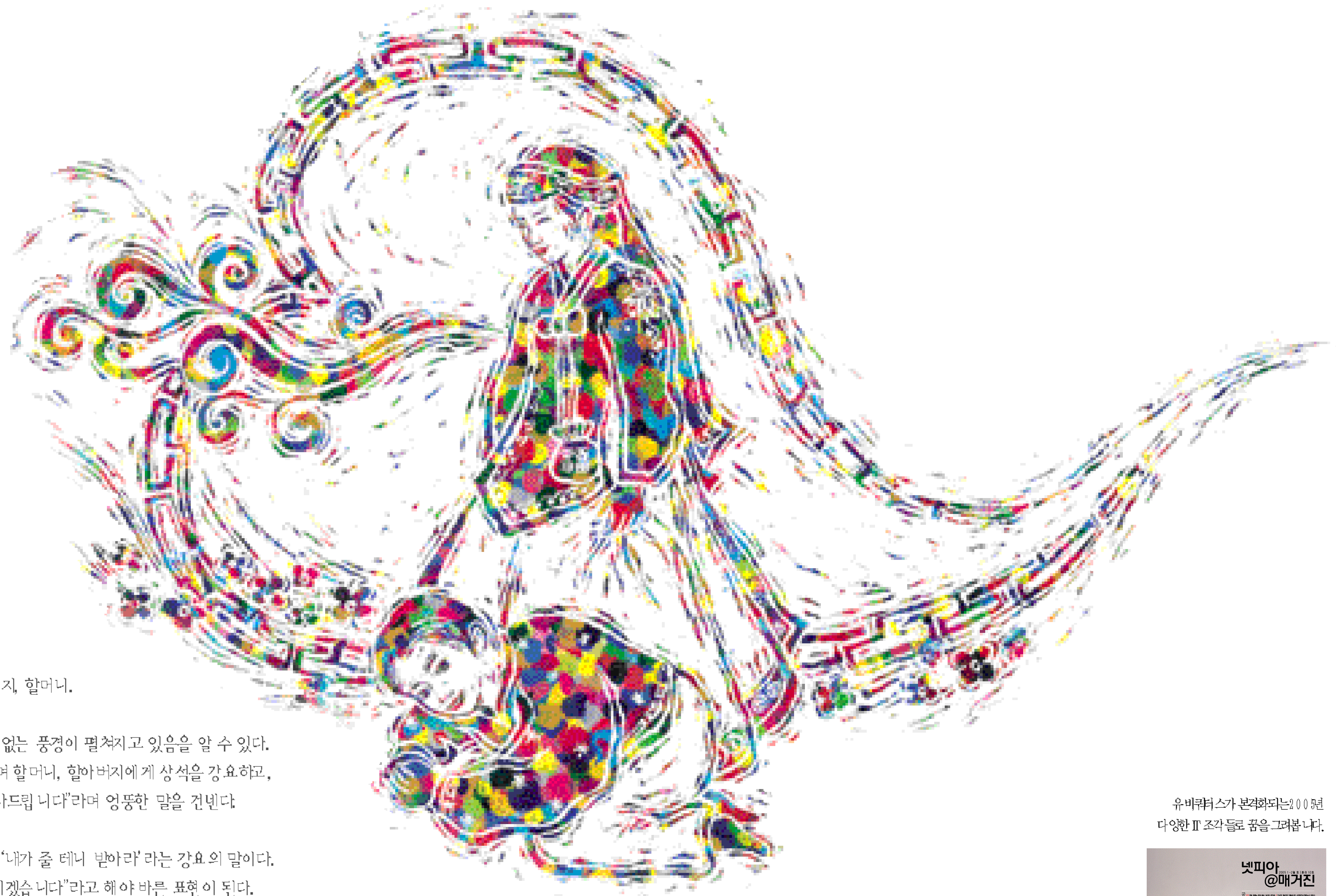
아직도 세배를 강요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공손히 세배를 하는 아이들과
흐뭇한 미소로 덕담을 건네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이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의 부모들은 "세배 받으세요"라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상석을 강요하고,
어른들의 덕담에 아이들은 연신 "감사드립니다"라며 엉뚱한 말을 건넨다.

"세배 받으세요"라는 말은 웃어른께 '내가 줄 테니 받아라'라는 강요의 말이다.
"세배 드리겠습니다" 혹은 "세배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

또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 고유어인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굳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겠다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밝아오는 새해의 첫날, 더욱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세배와 덕담.
언제까지 세배를 '강요'하고, 감사를 '드리는' 덕담을 나눌 것인가?

유비쿼터스가 본격화되는 2005년
다양한 IT 조각들로 꿈을 그려봅니다.

넷피아 @매거진

인터넷주소의 자국어화!

통권10호
2005 1+2

발행인 이판정 | **발행처** (주)넷피아닷컴 사보팀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KOAM 빌딩 신관 11층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들 조성희, 이동원 | **발행일** 2005년 1월 15일 | **전화** 02-2165-3082 | **팩스** 02-2671-5613
http://**넷피아**(www.netpia.com) | **사보@넷피아**(sabo@netpia.com) | **디자인** 월드메디아 02-783-5283 | **인쇄** 독일P&P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을 필자나 본사의 허락없이 무단복사, 전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n+ 신호등 | 아직도 세배를 강요하십니까? 02
신년사 |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 04

n+ 특별한 이야기

꿈 | IT로 이루는 꿈의 세상, 당신이 주인공 07
꿈 | 인터넷 정보접근 향상의 꿈,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이어가 08
꿈 | 21세기, IT 혁명은 꿈속에도 존재한다 10
꿈 |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 12

n+ 솔직한 이야기

김도형의 사진이야기 | 충북 서산 왜목마을 14
한글인터넷주소 활용 성공사례 | 농심 & 서울시세금 & 제록스 17
시선집중 한글인터넷주소 22
n+ 발언대 | 인터넷 리플에 대한 찬반론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 멘토, 멘티로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가는 사람들 26
세계한마당 | 세계화 넘어 국제표준화 바라보는 자국어인터넷주소 28
+1 서비스 | 한글인터넷주소와 병행하면 효과만점 '부가서비스' 30

n+ 유익한 이야기

지갑 속 경제 | 국민성과 시대상황 대변하는 화폐단위 32
정보 상자 | 소문난 사이트에는 '그것'이 있다 34
한글사랑, 기업사랑 | 산돌커뮤니케이션 36
내 안의 1% | 성공하려면 위인을 벤치마킹하라 38
n+ 1교시 |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40
우리 것을 찾아서 | 한복 42
우리 글 지킴이 | 최종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44
선조들의 입맛을 통해 본 한국 | 식혜의 선조는 젓갈 곡물이다 46

알림방 48
n+ 우체통 50